

손실보상금 지급 '착착'... 소상공인 소급적용·회생은 '숙제'

중기부, 276만 곳에 17조 지급
이들간 지원금 74% 지급완료

소공연·한상총련
"尹 대통령 약속 '온전한 보상'
'소급적용' 신속히 실행해야"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코로나19 첫 손실보상이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1일부터는 할짜제가 해제되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소급적용'과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에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회생'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사흘째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284만 곳이 신청해 이 가운데 276만 곳에 총 17조388억원을 지급했다. 앞서 중기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한 손실보전금은 약 23조원 규모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는 371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일 대전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관에서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현황판을 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만 곳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이다. 이들간 지원금의 74%가 대상자들의 통장으로 들어간 것이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첫 이틀간의 접속 폭주 등을 우려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할짜제를 운영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할짜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가게 등 사업체를 여러 곳 운영하는 대표자는 2일부터 발송하는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동대표가 운영

하는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등 23만 곳에 대해선 오는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시작할 예정인 만큼 사업체 특성에 맞게 신청해 지원금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0시~오전 10시 신청→당일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당일 오후 3시 지급 ▲오

후 1~3시 신청→당일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당일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당일 오후 9시 지급 ▲오후 7시~자정 신청→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등이다.

더욱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절차 등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이나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윤 정부가 첫 추경을 통해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전금에 대해 '소급 적용'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지방선거(6월 1일)를 앞두고 급한 불은 졌다"고 평가하며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의 다른 이름일 뿐이고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소급적용'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도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빠져 있다. 손

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진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상총련은 "정부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만큼 100% 전액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 그래야만 '온전한 손실보상'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브리핑에서 '소급 적용 논란'을 묻는 한 언론의 질문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관련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빠졌었다. 다만 지금 국회에서 (소급적용 관련)입장들이 좀 선화하고 있고 여야가 이 부분을 다시 개정하자고 하고 있어 개정이 되면 부처에선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7월29일까지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아 신청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엔 전국의 70개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 안내받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아기유니콘 60개社 선정... 최대 3억 지원

중기부, 1000억 예비유니콘 육성 목표
특별보증·해외진출 지원 등 혜택

중소벤처기업부가 미래의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아기유니콘' 60개사를 선정했다.

2020년 40곳, 2021년 60곳에 이어 올해가 3번째로 지금까지 총 160곳의 아기유니콘을 뽑았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에는 284개 중소기업들이 지원해 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정기업 60개사의 평균 업력은 5.1년이었다. 매출액은 46억4000만원, 올해 3월말 기준 고용 인원은 35.9명으로 집계됐다.

뽑힌 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과 사업성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인 우수 기업이 절반 가량인 28개(4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38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분야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분야 기업이 27개(45.0%), 바이오·헬스분야 기업이 16개(26.7%) 등 미래유망 분야 기업이 다수 선정됐다.

<아기유니콘 선정기업 지원체계>

신시장 개척	선정된 100개 기업에게 '시장개척 지원자금' 최대 3억원 지원		
신시장 진출	(투자가 연계) 국내외 VC와 IR	[해외진출 지원] 창진원 네트워크	[기술 신시장 진출] 규제샌드박스 지원
금융+R&D	특별보증 최대 50억 (기보)	정책자금 최대 100억 (중진공)	중기부 R&D 우선권 (기정원, 지평단)
경영 지원	청년채용장려금 (고용부)	방송광고지원 (KOBACO)	ESG 경영도입 지원 (중진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주목할만한 선정기업으로 최종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네이처모빌리티'는 제주도를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로 렌터카 가격비교 플랫폼인 '짬'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주요 포털과의 제휴를 통해 항공권, 택시 등을 포괄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네이처모빌리티는 최종 평가에서 전문가평가단으로부터 "다양한 모빌리티 자원들 가운데 끊임없이 틈새 시장을 찾아내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명단에 오른 '엔원테크'는 미래 전기차 모빌리티의 핵심 디바이스인 2차전지 내 동박막 생산용 설비를 제조한다.

'동박막'은 전기차배터리의 4대핵심 소재인 양극제, 음극제, 분리막, 전해액 가운데 음극제에 쓰이는 얇은 구리 박막을 말하는 것으로 내부 발생열을 방

출하고 전극 형상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 회사는 글로벌 배터리 완성기업이 요구하는 가볍고 부피가 적은 동박막 생산 설비 핵심기술을 보유해 동박막 제조사에 해당 설비를 공급중에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아기유니콘들에게는 신시장 개척자금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특별보증(최대 50억원), 정책자금(최대 100억원), 중기부 R&D 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기존 연계지원 외에 해외진출 지원, 방송광고 지원, 청년채용 장려금, ESG 경영도입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가해 아기유니콘에게 더욱 풍부하게 지원한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하반기에도 40개사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웰스, 공기청정기 '안티바이러스 토네이도' 인기

출시 첫달 대비 4월 판매량 36% ↑

교원그룹의 건강가전 종합브랜드 웰스(Wells)가 지난 2월 출시한 '웰스 안티바이러스 공기청정기 토네이도'가 인기다.

1일 웰스에 따르면 공기청정과 세균, 바이러스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출시 첫 달과 비교해 지난 4월 판매량이 36%나 늘며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웰스의 '안티바이러스 공기청정기 토

네이도'는 강력한 공기 청정 능력 뿐만 아니라 공기 중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안티바이러스 기능까지 갖췄다.

제품은 병원이나 실험실 등 높은 청정도를 유지해야 하는 시설에 사용하는 최상 등급의 필터인 H14급 헤파필터로 구성된 '항균 H14 울케어 필터'를 적용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0.01μm(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극초미세먼지를 99.999%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토피나 새집증후군 원인 물질과 각종 집안 내 생활 냄새까지 제거해 준다. /김승호 기자

동화기업, 합판 강마루 나투스강 등 선택

'친환경' SEO 등급... 짝힘·긁힘 방지

동화기업이 합판 강마루 '나투스강'과 듀얼 코어 복합 강마루 '나투스듀오' 새 제품을 선보이고 기존 제품군도 리뉴얼했다.

1일 동화기업에 따르면 나투스강은 특수 합판으로 제작한 SEO 등급의 친환경 마루다. 외부 충격에 강해 짝힘과 긁힘을 방지할 수 있다. 관리가 쉽고 보행감도 우수해 실용성이 높다.

이번에 출시한 광폭 나투스강 텍스처는 마루 표면에 나무 특유의 질감을 자



나투스강 텍스처 슈프림 베이지.

연스럽게 구현했으며, 차분한 색상의 패턴으로 공간을 우아하게 연출할 수 있다. 총 10가지 패턴이 있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기표 잘못... 재교부 요구 거절" 격분 투표용지 찢은 남성
▲ 섬 43개인데 투표소 11곳뿐... 통영 섬주민들, 어선타고 투표소로 /사진 뉴시스

▲ 면허 취소 김새론, 변호사 선임 "조사 성실히 할겠다"
▲ '성폭행 혐의' 서울 관내 현직 경찰관 구속... "증거 인멸 우려"



▲ 法 "외교부,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 복귀 명령 취소해야"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8% 인상... 진료비 오를 듯 /사진 뉴시스